

‘세운귀’ 부서에서 일하면서 바늘귀 없는 바늘을 만듭니다

- 수술용 바늘 만드는 노동자 경록 님 인터뷰

메밀 상임활동가

‘노동 없이 생산은 없고, 생산 없이 생존은 없다’는 노랫말이 있다.¹⁾ ‘온 세상의 삶과 풍요는 노동자의 피땀’이라는 가사로 이어져 ‘자본가의 법과 제도를 깨고 건설하라 새 세상을’이라는 외침으로 끝나는 노랫말이 문득 떠오른 것은, 지난 12월 4일로 예정했던 인터뷰를 계엄시국 시민대회에 참석하느라 한 차례 미루고 2주 만에 만나, 수술용 바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듣게 되면서였다. 세상 모든 것이 노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고, 지속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부산의 의료기기를 만드는 공장 ‘아이리’에서 일하는 경록 님에게 들어보았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리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서른두 살 노동자 문경록입니다. 열아홉 살 되던 해 추석이 지난 후에 입사했으니까, 이제 올해로 12년 차네요.

와, 오래 일하셨네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제가 특별히 오래 일한 편은 아니에요. 저희 외할머니의 친구의 친구가 당시 아이리에 다니던 분이셨어요. ‘우리 회사 괜찮다, 일도 고강도가 아니고 보너스가 나쁘지 않게 나오는 편’이라는 소개말이 외할머니를 타고 전해진 거죠. 그때 저는 검정고시를 보고 나서 테이크아웃 카페에서 두 달 정도 일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할머니가 저한테 요새 뭐하냐고 하셔서 ‘커피 판다’고 했더니, ‘젊은 아가 그런 일 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아이리에 들어가게 되었어

1) <탈환> 작사·작곡 김호철

요. 나중에 ‘카페베네’ 앞을 지나가면서 ‘ 할머니, 내 저기서 일했다.’ 하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용두산공원 같은 유원지에 구루마 끌고 다니면서 칩차랑 커피 팔면서 고생하는 줄 아셨던 거예요.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일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검색해 보니 봉합사, 봉합침, 사부침, 수술칼을 만드는 회사라는 소개가 있던데, 수술칼 말고는 좀 다 낯설어요.

쉽게 수술용 바늘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봉합침은 꿰매는 바늘, 봉합사는 실, 그 두 개를 묶어 사부침이라고 해요. 수술칼은 지금은 생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세운귀’ 부서에서 일해요. 세운귀는 말 그대로 세워놓은 귀를 말하는데요. 수술용 바늘 중에는 급하게 봉합해야 하거나 섬세한 수술이 필요할 때 바늘귀 없이 바늘에 실이 합쳐져 있는 형태로 만든 바늘을 이용해요. 저는 그 바늘을 만드는 과정의 초반 부쯤에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긴 금속이 회사로 도착하면 자르고 재단해서 세운귀 부서로 오거든요. 바늘이 되기 위해 아주 가늘게 만들고 연마한 금속 침들을 트레이에 정렬해 담고, 레이저 기계로 가져가 세팅한 후 확대경 모니터로 조준점을 잡아 레이저 광선을 때리는 일을 해요. 직경은 0.22mm 부터 1.3mm 정도, 바늘 길이는 8mm에서 250mm까지 다뤄요. 0.22짜리 바늘에는 0.08짜리 구멍을 내죠. 마이크로 바늘은 더 작은 것도 있는데요, 제가 다루는 바늘은 그 정도입니다. 입사하고 지금까지 첫 한 달 정

도 빼고는 세운귀 부서에서 쫓 일했어요. 오전에는 내내 레이저 쏘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트레이에 바늘을 정리하고 생산량을 기록하고, 정비가 필요한 기기는 없는지 점검 하거나 부자재 재고 파악 등도 합니다.

그렇군요. 일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은 없나요?

한 자세로 반복 작업을 계속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 회사 사람들은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걸려요. 저만 해도 어깨가 안 좋아요. 도수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건초염과 터널 증후군에 만성적으로 시달리는 분도 있어요. 병원 가면 쉬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주기적으로 심해졌다 나아졌다 하죠. 허리디스크, 목 디스크 같은 것도 꽤 있고요. 바늘 구멍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공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구건조증과 시력 저하를 겪습니다.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거나 베이는 일이 몇 년에 한 번 정도 있기는 해요. 사고는 산재로 처리되는데, 질병으로 산재 인정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없네요.

제가 여러 일을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일이 아주 힘든 것까지는 아니긴 해요. 그렇다 보니 임금도 적은 편이고요. 그러니 금속노조에서는 특히나 희소한 여초 사업장이 되었겠죠. 일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지만, 작년에 직장폐쇄에 대응해 천막 농성을 했는데 그때 너무 추웠어요. 몸 상한 사람이 여럿이에요. 자연 감소하는 인원이 있어도 사람을 새로 뽑지 않고, 임금인상과 처우개선도 없이 각종 땅 투기에, 노조 탄압과 직

장폐쇄까지 이어지면서 투쟁이 본격화됐죠. 그전에도 경고성 기습파업은 해왔었고요.

작년 천막 농성 때 아이리에 처음 가서, 공장 마당에 모여 세찬 바람을 맞고 있던 여성 조합원들 사이에서 눈에 띄던 경록 씨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여초라고 하셨는데, 아이리 현장은 성비가 어떨까요?

우리는 유니온샵이라 생산직 전체가 조합원 인데요, 전부 정주민들이고, 한 150명 되는데 90퍼센트 가까이가 여성이에요. 4, 50대에 몰려 있고, 공장에서 제가 제일 어려워. 저 말고 30대 조합원은 저보다 두 살 많은 누나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 노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만의 구호가 있어요. ‘내 밥그릇 내가 지키자!’인데요. 점심시간에 모여서 보고대회를 하거나 사측에 불만이 있을 때면 항상 모여서 “내 밥그릇 내가 지키자, 내가 지키자, 내가 지키자, 투쟁!”하고 외친단 말이죠. 여성 고령 노동자 집단으로서 자기 가정과 생계의 주체가 되겠다는 의지가 담긴 구호예요. 이모들이 찬 맨바닥에 앉아서 종일 그러고 있는 게 진짜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러겠다는 건 아니지만, 하다못해 저는 젊으니까 다른 직장 갈 수 있다 쳐도, 우리 동지들 대다수는 이 일터 정말 더더욱 지켜야 하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이어 최근의 의료 대란까지, 수술용 바늘의 생산 물량에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확실히 이번 의료 대란을 거치면서 물량이 많이 줄어든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줄어

들어 왔다고 해도 여름이랑 겨울에는 물량이 비교적 많았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물량을 많이 뽑아둘 생각인 것 같아요. 토요일은 격주마다 일했는데, 이번 달에는 매주 나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모든 품목 생산량을 일정 정도 만들었다면, 요즘은 주요 주문 품량에 집중해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게 회사 나름의 전략인 것 같아요. 의료공공성이 지켜지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우리도 안정적으로 납품을 계속할 수 있어요.

일터에서 얻는 기쁨과 보람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일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좋아요. 일을 한다는 건 밥을 먹기 위한 거고, 밥 먹을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하는 보이지 않는 자산에 투기해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땀 흘려 일해 얻은 재화를 통해 삶을 살아간다는 정직함과 투명성에서 뿌듯함을 느껴요. 또 제가 우리 직장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건 12년 동안 월급 정확히 줬던 것과, 다들 함께 오래 일한 사이이다 보니 사적으로도 친밀한 관계라는 점이에요. 오래되다 보니 동료들과도 어느 정도 신뢰와 애정이 쌓여있어요. 특히 노조를 함께 하고 투쟁을 함께 하면서 끈끈해진 게 큰 것 같아요.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회사를 지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노조가 있다는 게 또 좋기만 하진 않더라고요? 노조가 있다는 건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일인데, 그건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야 하는 거라서, 좀 피



▲ 레이저 광선으로 바늘에 구멍을 내는 작업중인 경록님. 매우 가는 금속의 단면에 정확하게 광선을 쏘기 위해 확대 화면을 보며 타공 지점을 조정한다. (사진:문경록)

곤할 때도 있어요. 내가, 우리가 직접 움직이고 실행에 옮겨야 하니까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노동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게 되고, 같이 투쟁하는 과정에서 연대 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휴, 그래도 노조 너무 열심히 하면 인생이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그런

사람들 보면서 뭐라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지회장님이 저랑 같은 해에 입사해서 같은 부서에서 줄곧 함께 일한 동지인데, 집도 멀고 가정도 있는데 우리랑 같이 퇴근 못 하고 노조 일하느라 술선수범하는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드는 것 같아요. **알터**